4대 종교 성직자에게 '마음공부법'을 듣다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만남중창단' 종교인들 발제
각 종교별 마음공부법 전해

'心不見心', 불교 수행 본질
개신교, '예수마음' 공부 모델
가톨릭 '피정' 영신수련 소개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은 7월 18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4대 종교 성직자로 이뤄진 만남중창단이 강사로 나서 이웃종교의 마음공부법을 전했다. 사진은 만남중창단과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을 비롯한 선원 스님들이 함께 기념촬영하는 모습.

4대 종교 성직자로 이뤄진 합창단인 '만남중창단'이 화음 대신 각 종교의 마음공부법을 전했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7월 18일 안양본원 3층에서 제27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여름을 맞아 열린 이날 계절발표회는 종교화합 중창단 '만남중창단'을 초청해 '이웃종교와 마음공부'라는 대주제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관사 주지 성진 스님은 '불교의 마음공부, 참선-마음은 마음을 볼 수 없다'를 통해 불교 마음공부의 본질을 살폈다. 성진 스님은 〈대승기신론〉의 "모든 분별은 자기 마음을 분별하는 것이니 마음으로는 마음을 볼 수 없다"는 구절을 통해 불교 마음공부법의 구조를 분석했다.

스님은 본래 마음을 '고요한 바다'에 비유했다. 무명의 바람이 불면 파도가 일어나듯 마음이 움직이고,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갈라진 뒤 좋고 싫음을 판단하고 생각을 이어 붙이며 집착·명명·행동·괴로움으로 전개된다는 설명이다. 스님은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아는 것은 이미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진행된 뒤의 모습"이라며 "본래 마음은 형상도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어 감각과 개념으로 붙잡을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 마음챙김 기반 스트레스 감소법(MBSR), 수용전념치료(ACT),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에 대해서는 효용을 인정했다. 판단하지 않고 감각을 알아차리거나 생각과 자신을 분리하고, 찬물 세수나 감각 전환으로 충동적 행동을 멈추는 방식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틈을 만들어 괴로움의 확산을 늦춘다. 그러나 성진 스님은 "이 방법들의 공통점은 '보는 나'를 남겨둔다는 것"이라며 "불교는 보는 나와 보이는 대상이 갈라진 그 이전을 묻는다"고 강조했다.

불교의 마음공부는 감정을 잘 관리하거나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기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게 성진 스님의 설명이다. 참선은 '묻는 나'까지 돌이켜 보고, 염불은 흩어진 생각을 한 부처님 생각으로 모으며, 사경과 간경은 눈·손·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객이 갈라지기 전의 자리를 익히는 수행이다. 특히 마음은 대상으로 붙잡을 수 없기에 수행은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성진 스님은 "나와 대상이 분별되지 않는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한마음을 찾는 공부"라며 "불자는 본래의 깨끗하고 청정한 한마음을 전제로 참선이든 염불이든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간의 명상과 불교 마음공부를 혼동하게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미움과 싫음이 일어나기 이전의 하나 된 마음으로 돌아가려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불교 수행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개신교 김진 목사는 '개신교의 영성 이해와 마음공부'를 통해 개신교의 마음공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성경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웃종교 못지않게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 풍부하다"고 밝힌 김 목사는 "성경에서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향해 열리는 자리이고, 생각과 욕망과 의지와 사랑이 모이는 내면의 중심"이라며 "마음이 새로워지면 존재가 새로워지고, 마음이 하나님께 열리면 삶 전체가 변화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개신교의 마음공부 모델이 '예수마음'이라고 소개했다. '예수마음'은 단순히 예수의 생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지니셨던 마음, 사람을



공연을 하고 있는 만남중창단.

향해 품으셨던 마음, 세상 속에서 살아내신 마음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게 김 목사의 설명이다.

김 목사는 '예수마음'의 핵심을 허(虛)·명(明)·정(靜)·일(一)로 집약했다. 김 목사에 따르면 허는 비워진 마음이고, 명은 밝은 마음이며, 정은 고요한 마음이고, 일은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향해 하나됨을 이루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신교의 영성수련으로서 마음공부는 '예수마음'이 우리를 통해 제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을 덮고 있는 허상을 깨트리는 길"이라며 "참나로서 하나님의 형상이 올바르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명정일'의 '예수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톨릭 하성용 신부(서울대교구)는 '천주교의 마음공부, 피정'에서 가톨릭 신자들만의 영신수련법인 '피정'에 대해 소개했다.

'피정'은 가톨릭 신자들이 영신생활이나 쇄신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피정'은 성 이냐시오 로욜라가 저서 〈영신수련〉을 통해 실제적인 피정의 방법으로 발전시켰다. 이후 해당 저서는 1548년 교황 바오로 3세에 의해 인가되고 교황 비오 11세는 이냐시오를 피정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면서 피정은 가톨릭의 수행법으로 자리잡았다.

19세기부터는 성직자들을 위한 연례 피정이 실시됐고 현재 교회법상으로는 성직자들은 3년에 한 번, 수도자들은 1년에 한 번을 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돼 있다.

피정은 이냐시오 영신수련이 공부의 핵심이며 이는 '성경 관상'과 '의식 성찰'로 분류, 구성된다. '성경 관상'은 텍스트를 머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감을 활용해 성경 장면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기도이며, '의식 성찰'은 하루를 마치며 내 삶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과 현존과 움직임을 돌아보는 것이다.

하 신부는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은 단순히 머리로 읽는 책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을 식별하도록 돕는 '마음의 훈련 교범'"이라고 설명하며 "영신수련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신수련은 세상을 떠나 산속에 숨어 살기 위한 기도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치열한 일상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인지 분별해 '행복한 관상가'로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웅 원불교 교무는 원불교의 마음공부법인 무시선법(無時禪法)을 소개했다. 박 교무는 "무시선법은 분별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깨달아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라며 "전생과 현생에 쌓인 업력과 습관성이 마음을 구속하기 때문에 본래 성품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시선법의 핵심 원리로는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는 것'을 제시했다. 분별과 집착이 없는 본래 마음을 바탕으로 삼되, 현실에서는 상황에 맞는 바른 판단과 행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마음을 비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맑은 마음을 실제 생활에서 선하게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천법으로는 육근이 무사할 때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기르며, 경계를 만났을 때는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는 '동정간 삼학병진'을 들었다. 또한 수행의 단계를 집심·관심·무심·능심으로 구분하고, 초입자는 경계를 만날 때마다 "지금이 공부할 때"라는 생각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교무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욕심을 일으키는 물건도 모두 공부의 재료"라며 "경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 속에서 끌리고 끌리지 않는 마음을 살피며 자유자재한 마음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사이에 '만남중창단'의 짧은 공연도 진행됐다. 이들은 선법가 '공심 공체 둘 아닌 노래'와 '행복을 주는 사람', '바람의 빛깔' 등을 열창했다. 발표 후에는 청중과 함께하는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종교 간의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되길 기대했다.

혜수 스님은 "은사이신 대행 선사께서는 종교는 이름일 뿐 모두 진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대행선연구원의 표어에도 나타나듯 불은 생명, 교는 생활이다.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진리라고 선사께서 말씀하셨기에 신도들은 이웃종교에 대해서 그리 낯설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제 원고를 살펴보면 네 분의 종교인께서는 종교가 하나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오늘 발표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관념을 깰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교 간 대화와 마음공부의 의미를 강조했다. 혜선 스님은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종교인들이 함께한 데 대해 "한두 분씩 선원을 찾은 적은 있지만 4대 종교의 종교인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귀한 일"이라며 "손가락은 서로 다르지만 모두 있어야 손의 역할을 한다. 다르다고 모두 같게 만들면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차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SINCE 2002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NAVER 영옥사리 검색